

“지역 상생 강화…대학 혁신 위한 변화 이끌겠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 취임 100일

이근배 전남대 총장이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을 핵심 비전으로 취임 100일간 대학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월 26일 취임 이후 소통과 참여를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총학생회, 학장단, 실과장, 직능 단체 등과 20회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통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다.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요 공청회’를 격주로 개최하며 활발한 의견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주차 문제, 구내식당, 캠퍼스 환경 등 일상적인 불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했고, 이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낳았다. 소통과 실천이 함께하는 이러한 변화는 대학 운영이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

소통·참여 원칙 ‘수요 공청회’ 등 운영 디지털 전환 시대 인재 양성 체계 구축 RISE·창업선도대학 사업 선정 등 성과

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총장은 취임 후 광주시장, 북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10회 이상 면담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산학연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대학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 체계 구축도 이 총장의 주요 행보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AI 및 데이터 기반 교육 강화에 집중하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기반 융합학위제 도입을 추진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난 2월26일 취임 이후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을 핵심 비전으로 100일간 대학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학교 제공>

하고,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교육 플랫폼 정비에 속도를 내는 한편, G&R HUB 등 관련

다양한 진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 부문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행정고시반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학습 환경과 진로 설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이 총장의 의지는 다양한 국제사업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대는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을 통해 향후 5년간 919억원 규모의 국고를 확보하며 지역사회와의 공동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최근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도 선정돼 2029년까지 총 357억4천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근배 총장은 “대학은 더 이상 내부만을 바라볼 수 없다. 지역과 함께 숨 쉬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인재를 키우는 전남대, 지역과 동행하는 전남대의 모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동강대, 한류 문화 축제 한마당 ‘성료’

‘제2회 K-컬처 페스티벌’ 개최 12개국 28개팀 참여 축제 만끽

동강대학교가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과 글로벌 다문화 인재 양성을 위해 K-POP과 K-한글 등 한류 문화 축제의 장을 열었다. 16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전날 본관 5층 나이트클럽에서 ‘제2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동강대는 2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다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호남권 대학 최초로 국내·외국인이 함께하는 ‘K-컬처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전진숙·조인철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문인 광주 북구청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해 ‘글로벌 동강’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김다이지

또 동강대 여학연수생을 비롯해 ▲베트남 ▲튀르키예 ▲카메룬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중국 등 12개국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축제의 장을 맘껏 즐겼다. ‘K-컬처 페스티벌’은 ▲테마가 있는 ‘K-POP 콘테스트’ ▲주제가 있는 ‘K-한글 콘테스트’ 등 2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예선을 통과한 28개팀(K-POP 15·한글 13)이 실력을 뽐냈다. 영예의 대상은 ‘K-POP’ 부문에서 베트남 출신 도탄정씨가, ‘K-한글’ 부문은 ‘밤상문화 낮잠’에 대해 얘기한 베트남 출신 응웬터란씨가 각각 받았다. 이민숙 총장은 “세계를 주도하는 K-문화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생 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동강대는 글로벌 성장을 위한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市교육청, ‘학교폭력 AI바로’ 시범 운영

전국 첫 온라인 사안 처리 시스템 오는 8월까지 접수…원스톱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온라인 사안 처리 시스템 ‘학교폭력 AI바로’를 구축하고 8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AI바로’는 기존 수기나 공문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

어나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 시스템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를 비롯해 ▲전담조사관 배정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 ▲사안 처리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추출 등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사후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한다.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인 지체율 신청과 특별교육운영 시스템 연계도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5개교씩 총 15개의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학교폭력 AI바로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기대된다”며 “학교폭력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학교 현장을 지원해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지

‘0-2세 맞춤형 체험’…道교육청, 유보통합 시범사업 본격 추진

8월까지 14개 지역 총 779명 참여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8월까지 도내 0-2세 영아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사진)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여수 소재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고흥, 완도, 신안 등 14개 지역의 3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총 779명의 영아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연물을 활용한 오감놀이, 생태교감 등 영아 발달 초기 단계에 적합한 체험활동으로, 영아가 오감을 통해 놀이하며 스



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영

아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교육청이 0-2세 영아만을 위한 시범 사업을 별도로 기획해 추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원아 수가 적어 도시 지역에 나가지 않고는 쉽게 진행하지 못했던 체험활동을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0-5세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향후 전남형 유보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이지

엄마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우리 아이 양육 파트너 ‘아이돌보미 모집’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회원가입 → 모집공고확인 →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

대표번호 :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 idolbom.go.kr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